



오늘의 말씀 - 목 (출 5:1-14)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5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흠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본문 이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제사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이르되,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좁게 하라. 전에 만든 수효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감독들

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벽돌의 수효를 채우지 않았느냐?” 하니라.

적용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애굽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바로의 반응은 아주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번에는 요청의 강도를 좀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하며 은근히 으름장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다고 으름장이냐?” 하면서, 돌아서서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노예들이 게을러져서 제사나 어찌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노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허튼 소리 나오지 않게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괜한 불뚱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모두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왜 연약함이나 미성숙이나 죄가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온갖 죄가 산적해 있었을 테고, 거기에다 바로의 교만과 죄, 등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세상이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얽힌 실타래를 풀어 가십니다. 교만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

나의 연약함과, 미성숙과 게으름과 교만과 죄 때문에 아직도 내 주변이 복잡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애통해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맑히고 밝히며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5:15-6:1)